국회 정상화…예산안·법안처리 가속페달 밟나

여야 지도부 국정원 개혁특위 등 쟁점현안 합의

예결위 새해 예산안 상정…11일부터 임시국회

여야 지도부의 전날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구성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전격 합의에 따라 국회가 공전 6일 만에 다시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국회는 4일 오전 안전행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 법안 심의를 재개했고, 오후에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상정하는 등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이날 예산안 상정과 동시에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책질의에 나섰다. 정책질의는 종합정책질의(4~5일, 8일), 경제·비경제분야 심사(6~7일) 등의 일정으로 5일간 진행된다. 사업별 예산을 증액·삭감하는 예산안조정소위는 오는 10일부터 가동된다. 여당 의원 8명, 야당 의원 7명 등 15명으로 소위가 구성된다.

여야는 예산안 심의가 많이 지연된 만큼 이날부터 최대한 빠른 속도로 심의를 진행해 올해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예산부수 법안과 각종 민생관련 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10일 종료되는 점을 감안,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조만간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전병헌 원내대표는 전날 밤 국회 본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4자회담을 열어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설치에 전격 합의했다. 첨예한 쟁점이었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문제는 앞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 법률안은 연내에 합의해 처리하고, 민생 관련 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키로 했다.

국정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법률안 처리 권한을 갖게 된다.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국정원 개혁특위에서는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강화·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권 강화,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등을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하기로 했다.

정보기관의 불법감청 처벌 강화,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 통제,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도 특위의 연내 우선 입법 사항, 또는 처리 사항으로 명시됐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핵심 사항은 연내 처리하되 국가기관 정치개입 금지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국정원의 대테러 대응능력 및 해외·대북 정보능력 관련 사항은 내년 2월말까지 특위에서 논의키로 한 것이다.

정치개혁특위에 대해서는 활동시한을 내년 1월31일까지로 정하고,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문제는 "시기와 범위 문제를 계속 논의한다"는 수준에서 절충됐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개혁방안의 각론에서는 입장차가 작지 않아 특위 운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검 도입 여부도 언제든 재점화할 수 있는 '불씨'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는 지난 3일 밤 국회 의장실에서 4자회담을 계속해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예산안과 법안을 연내 처리하는 등 4일부터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담을 마치고 의장실을 나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정원특위·정개특위 어떻게 운영되나

여야 동수 구성…입법권 부여돼 '막강 파워'

선거개입 재발방지·정당공천 폐지 핵심쟁점

여야 지도부가 지난 3일 밤 국회 내 국가정보원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향후 이들 2개 특위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정원개혁특위와 정개특위는 지금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특위와 달리 입법권한 즉 법률안 처리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특위는 먼저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관례로 볼 때 여야 각각 10명 정도, 모두 20명 안팎으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의사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위원장은 국정원특위의 경우 민주당이, 정개특위의 경우 새누리당이 각각 맡기로 합의됐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내년 2월 말까지, 정치개혁 특위는 내년 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그동안 야당에서 제기해온 국가기관의 정치·선거개입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권 강화,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특위의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해 '게임의 룰'을 정비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여야가 작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비롯해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연합뉴스

민주 "특검 반드시 관철"

국회 정상화 타결 관련 당 안팎 후폭풍 차단 부심

민주당은 4일 전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여야의 국회 정상화 타결과 관련된 당 안팎의 비판에 직면하자 특검 관철 의지를 거듭 다지며 후폭풍 차단에 나섰다.

특검 도입에 대한 '명명백백한' 성과를 끌어내지 못한 것을 두고 당내 강경파뿐 아니라 특검과 관련 공조를 취해왔던 '범야권연석회의' 참여 세력의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입법권이 부여된 국정원개혁특위 가동을 통해 국정원개혁법안을 연내 입법화하기로 한 것을 '큰 성과'라고 자평하는 한편 '선(先)특위-후(後)특검'이라는 단계적 접근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등을 설명하며 협상안에 대한 추인을 시도했다.

김한길 대표는 "특검과 특위의 동시 수용을 주장하며 시간을 끌다가 예산안 통과를 목전에 두고 겨우 약속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어음'에 지나지 않는다"며 "입법권 있는 특위를 관철, 현찰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표는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는 추호도 변함 없다"며 "의사일정 진행 중에도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야당과 시민사회·종교계 인사들로 구성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특검이 실종되는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대한 특검 추진은 국민적 요구이자 동시에 민주당이 국민에게 한 엄숙한 약속이었다"며 "이에 시민사회와 종교계 인사들로 구성된 연석회의는 민주당의 '특검 없는 특위 수용' 합의를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으로 간주하고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당내 강경파의 비판도 거셌다. 한초선 의원은 "이 정도 결과를 얻으려고 몇 달 동안 싸운 것이냐"고 했고, 또 다른 재선 의원은 "협상 결과가 이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말 '예산·입법 대전(大戰)'을 앞두고 적전분열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협상안은 추진됐다. 민주당은 다만,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새누리당에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특검 관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정원 개혁안 연내 입법 '합의' 구체안엔 '이견'

與 "국내파트 존치" 野 "국내정보 폐지"

여야가 국정원개혁특위를 구성, 국정원 개혁 입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 안을 놓고는 이견을 크다.

우선 국정원 '국내파트' 활동을 놓고 의견이 갈린다. 합의문에 명시된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사항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이다.

국정원 직원들은 그동안 국내정보관(IO.Information Officer) 직함으로 관공서, 언론사, 기업 등을 출입하며 각종 정보를 수집해왔다.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정보수집이 금지되면 사실상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창구가 막혀 국내 대공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사항은 단순히 국정원 직원의 기관 출입을 금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동안 논란이 된 국내정보관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국회의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 문제를 놓고도 민주당은 국정원의 항목별 예산을 일일이 확인함으로써 국정원 활동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은 예산 총액만 보고받아 국정원 활동상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예산정보를 통해 조직·인력규모, 정보활동 방향 등 비밀 사안들이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원룸전문(전대1분)
★전대 상대 농대1분★
◦룸11개(1층 상가) ◦월수익 420만, 준공완료
◦매가 5억9천(보증금 2000, 융 1억2천)
★전대 정문 1분★
◦룸18개(만실) ◦월수익 600만
◦매가 6억9천(보증금 2억, 융 1억2천)
★전대상대2분 용봉지구★
◦룸19개(1층 상가, 주택1개)
◦월수익 850만 ◦매가 12억(융 4억)
★화정동 APT 입구 코너★
◦1층 상가, 2층상가, 3층 룸9개, 4층 룸9개
◦월수익 1300만 보3억 ◦매가 19억
★남구 백운동 ★
◦룸15개(주택1개) ◦매가 8억8천
★전대정문 1분 ★
◦룸15개 (만실) ◦매가 6억3천
(보증금 4천 월510, 융 1억2천)
신한공인중개사
H.P. 010-6670-9800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150평~420평(분할 · 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 입니다.
2. 각 필지별 상 · 하수도관려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어등산 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2475-0933 010-5166-0013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득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에 해수욕장과 리조트 등 최고의 위락시설과 어울린 절경의 고급별장
토 지 4,900㎡
건 물 245㎡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100%) 건물에 수입창호 등 최고급 자재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집.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싼 도심속 전원 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숲속의 전원 주택부지 및 사찰용지로도 적합.
전 3,700㎡
매가 ㎡당 105,00원
행운공인중개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층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영 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신축원룸
(전대·상대·농대 쪽문앞)
원투룸 14개를 ▶11개로 최고위치!
1층상가
(2~4층 원투쓰리룸)
등기완료
(전면대리석, 벽돌집)
보증금 3천 월435
(연 5천2백)
매가 5억9천
(융1억3)
수완지구 상가
1층매매(17.5평) 3억5천
3층매매(85평) 3억2천
1층임대 (18평) 보3천 월130만
3층임대 (86평) 보3천 월190만
☎062)527-7600